



2008년 시무식

2008년 1월 2일 교육장에서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대표이사는 작년 한해 선보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올 매출목표도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달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2008년 신년사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그리고 한 해 설계를 알차게 하셨나요? 쥐는 다산과 부지런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생동감 넘치는 밝은 표정으로 첫 출근하는 선보가족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니 올 한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보가족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난해에는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영도공장, 목포공장의 정상가동, 홍터 신공장 가동으로 안정적인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올 매출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매출/수주목표 초과달성의 풍성한 뒤에는 Event 미 준수, 생산성 담보상태, 실패비용증가, 안전사고증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표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보대나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습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

와 열정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올해는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합니다.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사고 365일 실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안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동과 실천하는 안전생활화로 무재해 직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Event 준수입니다. 설계, 자재, 생산, 도면설명회, 자재검열, 품평회, 출고지시서발행 등 각종 Event 준수는 경영목표는 달성의 밑거름이며 우리 스스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제품완성도 100%, 실패비용 50% 절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완성도 100%의 완벽한 제품을 적기적소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우리 모두가 내가 사용할 물건이라는 생각과 사고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무결점의 완벽한 제품 생산은 물론 실패비용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고객은 우리의 품으로 모두 되돌아 올 것입니다.

넷째, 공장효율 20%증대 및 생산성향상 10%이상입니다. 각종 Event를 준수하여 생산 Lead-time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산 Lead-time을 줄인다면 공장효율 증대는 물론 생산성향상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체제구축, 작업표준재개정, 각종 취 공구 개발, 생산기법개발, 5S 생활화, TPS를 활성화하여 지금의 공장 규모에서 년 매출20% 이상 신장될 수 있도록 공장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갑시다.

다섯째, 각종 Process 개선입니다. 아직까지 전부분에 걸쳐 재개정해야 할 규정이나 절차가 산재해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없는 것은 재정하여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업무진행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력 사업은 100%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난립으로 인해 치열한 수주경쟁과 함께 수주단가는 저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시작된 비철자재의 폭등, 하반기부터 시작된 후판, Pipe, 형강류의 인상은 금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IMF시절과 2003년에 있었던 원자재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뒤에는 제자리를 되돌아갔으나 지금 인상되고 있는 원자재가격은 고점부근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확률이 높으며 경쟁사들의 공장 확장과 신생조선소의 가동으로 인해 인력난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지혜와 슬기로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본인이 여러분에게 당부한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 모두의 열정으로 완성해야 어려운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속에서 성장과 함께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전문가가 될 때만이 신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승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입니다. 본인은 여러분의 근면 성실한 자세와 불굴의 투지와 열정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고 "VISION 2012"의 완성과 "보대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힘찬 한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일 대표이사 최금식-





2007년을 닫고 2008년을 열자

선보가족 여러분! 200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우리는 정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연간 매출이 지난해보다 50%를 더 성장하여 대망의 일천억 달성을 한달이나 앞당겼습니다. 수출 3천만불 탐도 수상했습니다. 다대포 제2공장도 신축하고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회사들이 감탄할 정도로 공장을 정비하고 반듯한 생산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5S 활동이 열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람들의 자세, 동작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열렬히 원하여 꿈을 꾸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이끌면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사원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룸을 힘으로 하고, 아쉬움을 새로운 목표로 하여 선보의 2008년을 열어 갑시다.

첫째는 무사고를 이룹시다. 다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어렵거나 운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교육, 철저한 준비, 철저한 자기훈련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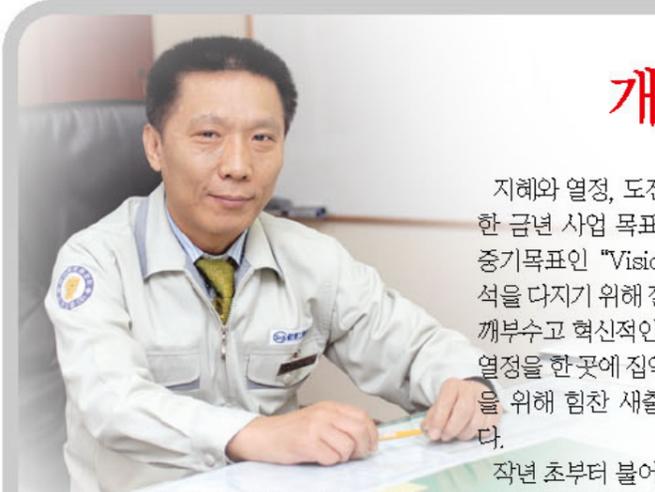
둘째는 진정한 업무 혁신을 합시다. 가

장 정확한 업무 절차(PROCESS)로 변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업무 절차(PROCESS)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쉽고 즐거운 업무절차(PROCESS)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절차(PROCESS)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잘 작동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하게 재창조 해야 합니다.

셋째, 신제품 또는 신사업 개발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업의 근원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구조변화)을 경영적 결단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되고 우리가 가진 전문역량을 최대한으로 키워서 더 큰 변화를 담당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사업영역에서 초일류가 되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달간 2008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간에 조율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수주 1850억, 매출 1500억, 원가절감10%, 생산성 향상 10%, 그리고 무재해 실현이 그 목표입니다. 전 조직별로 전략과 실행계획을 상세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작년도 실적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냉철한 반성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금년 목표 달성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세계 제일의 육·해상 모듈전문업체가 되기 위해, 전사원이 주주가 되는 우량상장사가 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상임고문 장명우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여 풍성한 수확을...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Vision 2012” 목표인 “육/해상 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와 열정, 도전정신으로 합의 도출한 금년 사업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고 중기목표인 “Vision 2012” 달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깨부수고 혁신적인 사고와 우리 모두의 열정을 한곳에 집약시켜 금년 목표달성을 위해 힘찬 새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불어 닦친 비철자재의 가격 상승은 고점에서 안착되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이 시작된 후판, Pipe, 형강류는 추가 가격인상과 함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슬기를 집약시켜 Event를 준수하고 생산성

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기적소에 자재를 수급하고 Loss를 최소화 시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기반을 우리 손으로 조성해 나갑니다.

우리 선보의 기업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불굴의 투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 둘 손질하고 바꾸고 만들어 개인, 부서,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여 풍성한 수확과 함께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손으로 가꾸고 만들어 나갑니다.

작년 매출목표를 달성한 장한 선보인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늘진 곳에서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의 결으로 다가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개인의 목표달성과 함께 개인의 회사 목표를 달성하여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사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화목,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영지원담당 최상식

변화, 동참, PROCESS ; 변화 합시다.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지런함과 다산(多産), 다복(多福)을 상징하는 쥐띠해에 우리모두 열심히 일하여 부자 됩시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 1,000억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중견기업에 깊숙이 진입한 뜻 깊은 한해였으며 매출목표 1,500억 달성의 더 큰 도전에 임하고 있는 올해에는 미국경제의 둔화, 중국 경제의 긴축 등으로 세P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며 국내 경제 또한 고유가, 원자재 상승, 내수부진 및 환율 하락 등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보인은 이런 격랑을 헤쳐 나가 기필코 목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은 반드시 변화(變化)해야 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체는 변화 경영을 해야 합니다. 침체된 국가 경제를 위해 지난해 국민들은 정치적 변화를 선택했으며 미국 또한 흑인 대통령이 기대될 정도로 변화 경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특성 중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실행입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져오므로 변화를 인식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는 항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변화의 실천에는 혁신(革新)과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외부와 내부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뜻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할 수 있고 번데기도 탈피를 해야만 나뉠 수 있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경영혁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BSC, TPS, PI 등의 경영혁신 기법은 바로 변화 경영이 아니며 단지 수단임을 명심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 합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그



리고 나서 변화 경영을 합시다. 매일매일 즐겁고 건강한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幸運과 萬福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전무 김양태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2008년을 맞아 올해 우리 회사의 수주목표인 1500억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모두 하나되어 힘차게 도약합니다.

지난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어 매출 1000억 달성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도 전 사원들이 다시 전진해 우리 회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담배를 줄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회사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는 현장 전체

에 좋은 환경적 여건을 갖추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다시 한 번 힘차게 전진합시다.

상무 정호경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최우선 목표는 매출 1500억원 달성입니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시행했었지만 잘 안돼 중단됐던 사업들을 시행하려 합니다.

먼저 공사완료보고서 작성입니다. 어떤 공사가 완료되면 원가 분석 등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물건을 만들어 잘잘못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 등을 기록해 다음 공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선완료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회사는 개선활동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에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 적용한 후 얼마나 이득이 생기는 지 매달 발표하고, 발표집을 발간할 것입니다.

2008년에는 더욱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월 2회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책 100권 읽고 좋은 구절 메모하기입니다. 우리 회사 내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직원들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최홍렬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보가족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의장품 전문회사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21년 동안 사장님 이하 모두 하나가 되어 꾸준한 성장과 선보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제가 선보와 함께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직 나라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는 선보가족들과 함께 일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빠른 네트워크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느린 물고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하고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2008년도에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변화와 재해

가 없는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선보가족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여러분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보유니텍 설계부 이사 공성문



체계적인 조직체제와 인력육성을 통한 혁신의 활성화

2008년 무자년 새해는 황금 쥐의 해로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입니다. 지난해 우리 선보는 연간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수출3,000만불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써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원년을 선포하고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선보가 성장해 나가야 할 분야와 비전을 설정 하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도산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산업의 특성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경영과 관

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선보는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이를 하나씩 갖추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영혁신활동을 통해서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BSC(Balanced Score Card, 전략적 균형성과 지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는 부문별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명확한 책임과 목표 관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제와 시스템 구축, 둘째는 체계적인 교육과 업무를 통한 부하육성, 셋째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전개, 넷째는 신규 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한 일터로 가꾸기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힘껏 노력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총무기획담당 김성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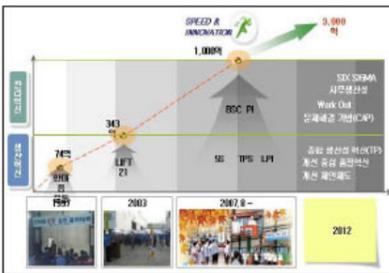


2007년 경영혁신 혁신기반 구축과

2007년 경영혁신 추진 성과

'경영혁신 원년으로 혁신 기반 구축과 문제해결능력 등 혁신역량 강화'

우리회사는 급변하는 세계 조경환경속에서 상시 변화관리를 통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우위 확보 및 고성장 유지를 위해 '07년 8월 대표이사의 경영혁신 원년 선언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동안 5S와 TPS, BSC와 PI, LPI 등 경영혁신 내재화 활동을 통해 '선보형 경영혁신 추진동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07년 경영혁신 추진 성과

'07년도 경영혁신 성과지표를 보면 BSC, TPS 등 5개의 혁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바쁜 현업 중에도 총 239명이 혁신 교육을 이수완료 등 과감한 인재육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재결품과 관리, 수불체계 개선 등 현장 고질문제 해결 프로세스 과제를 포함한 총 1,175건을 혁신과제를 완료하였다.

또한 상임고문 및 대표이사의 확고한 의지와 임원이 직접 혁신활동에 참여, 점검, 독려하는 등 경영혁신에 대한 솔선수범하는 경영층 중심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5S, TPS 활동관리 체계화 등 현장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이러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경영시스템 수준이 향상된 점을 인정 받아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생산성경영시스템 우수기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생산혁신 5S

5S 활동성과를 보면 인당 12건을 발굴 개선, 정리, 정돈, 청소 정착 등 5S활동의 식 전사원 파급 전개하였으며, 발굴개선, 점검관리 등 상시 5S활동체계를 확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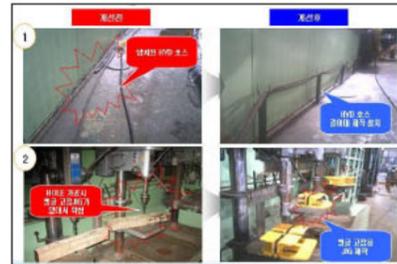
였고, 각 팀장, 소장 중심의 5S활동 지역을 지정하는 등 장기발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탈의장 및 옥상, 자재창고 정리 등 경영층의 직접 참여가 있었으며, 상임고문님께서도 매 교육 종료후 강평시 '5S는 바늘로 얼음깨먹기다'라는 등의 어록을 남기시며 5S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HYD, 호스 걸이대를 제작으로 HYD, 호스 방치 개선, 앵글고정용 JIG제작으로 출가공시 앵글 미고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거, 볼트너트를 품목 및 규격별 분리보관대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자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작업장내 밝은 조명을 확보하는 등의 1,125건의 현장 개선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 생산혁신 TPS

TPS 활동성과를 보면 5S활동과 연계한 개선체계로 인식 등 현장개선 기본 프로그램으로 도입 전개하였고 5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및 개선하였다. 그리고 5S활동과 통합한 현장혁신 기반 조성 등 장기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TPS 4대 낭비소멸 대표적 개선사례



1) 운반낭비 개선 : 호선별 이벤트 공유 및 히스토리카드 활용, 호선별 정리를 통한 자재 그룹화로 현장 투입시 자재 누락을 방지 개선



2) 재고낭비 개선 : 파이프, 앵글, 환봉 등 원자재 구매요청시 절단 사이즈를 명기하여 과다 절단으로 발생하던 재고낭비를 개선

3) 가공낭비 개선 : 도장업체에서 서포트 끝단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서포트 표면에 식별이 용이하게 블랙 번호를 기입함으로써 테이프 제거에 들어가던 재작업 낭비 등 개선

4) 불량낭비 개선 : 15A PIPE 도금시 관내 막힘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25A로 확관 개선하고 BOSS 나사에 도금이 두껍게 되어 상대물이 체결이 되지 않는것을 개선하고자 재질을 SUS로 변경 개선

5) 대기낭비 개선 : GLOBE VALVE 유체 흐름방향을 도면에 표기 출도하여 미숙련 작업자가 밸브를 유체흐름 반대로 설치하는 실수 방지

6) 동작낭비 개선 : 폐목정리용 JIG를 제작하여 폐목정리시 행해지던 여러 동작 낭비를 개선하고, 폐목장 주변 환경 등 환경 개선

▶ 관리혁신 B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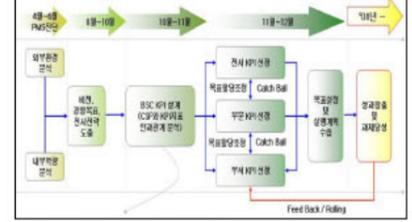
BSC 활동성과를 보면 부서장 이상 BSC 수립 리더들의 사업계획 주요 계량 목표 설정과 전략실행 수립 능력을 향상하는 등 BSC 운영능력을 레벨 업하였으며, 전사에서 부문, 부문에서 부서 단위로 목표 전개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층 중심의 목표관리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전략과 연계되는 성과평가지표 설정과 전략 실행력에 대한 객관성 제고 등 사업계획과 연계된 BSC 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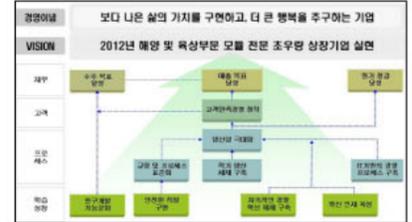
또한 BSC 수립결과 12개의 전사 CSF와 18개의 KPI를 선정하고, 평균 30% 이상 향상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사 KPI에 대한 주요실행계획을 보며는 재무관점에서는 PC S 물량 절감, 전산비품 절감 등을 통해 원가 절감을 달성하며, 고객 관점에서는 사전자주검사, 검사 코멘트 100%처리 등의 실행 계획으로 고객만족 경영 정착을 달성하고,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BLOCK 공정별 표준 프로세스, 생산 리드타임 감소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학습성장 관점에서는 BSC 기반 조성, PI 지속 전개 등의 실행 계획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수립활동 경과



▶ 전사전략맵 (Strategy Map)



▶ 프로세스혁신 PI

PI 활동성과를 보면 자재결품, 관리, 수불체계 개선 등 현장 고질문제 해결 프로세스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납기를 향상, PURIFIER ROOM 도후도 추진 등 기술 영업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추진하였고 예산관리체제, 비품관리체제 등 신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정의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5단계 개선 절차를 습득하는 등 PI 문제 해결 절차를 완성하였고, 각 부문간 업무 합의로 개선 프로세스 실행가능, 상임고문님이 직접 프로세스 강조 및 수시지도, 독려로 경영층 중심의 PROCESS OWNER제를 실시하였다.

기타 활동성과로는 대흥 R & T 및 리노공업 등 우수혁신기업 벤치마킹으로 혁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경영혁신 협의 전달로 자율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 뒤에 산재한 경영혁신 향후 추진 현안으로는 혁신 경험이 거의 전무한 조직으로 스타트하여 총5개 프로그램 13개 차수를 단기간 집중 운영하여 자체 추진 자생력 확보에 미흡하였으며, 1인이 여러 혁신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 활동하고, TOP DOWN식 혁신전개로 부서장급 직원의 업무 과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추진시기, 목표, 부문별 활동방향의 불명확 등으로 혁신 활동의 혼선으로 분석하고 '08년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반영 해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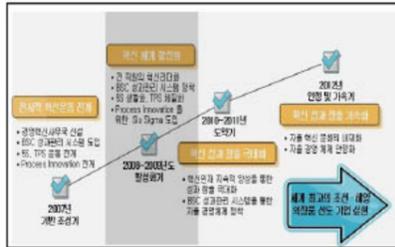


2008년 성과중심의 혁신활동 전개

2008년 경영혁신 추진 계획

'성과중심의 혁신활동 전개와 자율적 혁신문화 정착에 주력'

2008년도 경영혁신은 성과중심의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전년대비 2.5배 향상된 목표 설정과 달성목표의 20% 이상 향상된 도전목표를 운영목표로 설정 추진할 것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혁신활동 정착화 추진, 신규혁신활동체계적 도입 추진으로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갖춘 추진체계 완성, 성과창출형 혁신인재육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며 자발적 혁신문화 정착 측면으로 집중화하는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사항들을 구체화한 ACITON PALN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기존혁신활동 정착화 추진

• 현장혁신 (TPS+5S 통합) LEVEL-UP

TPS, 5S 활동은 현장혁신활동으로 통합하고 6회의 교육실시로 활동분위기를 활성화하며, 공장별 현장 혁신리더 양성, 현장혁신리더 중심의 활동전개, 성과중심의 현장혁신 과제 해결등으로 현장혁신활동 LEVEL-UP할 계획이다.

• BSC : 운영 정착화로 전략목표 관리 완성

BSC 정착화로 전략목표 관리를 완성하기 위해 1차 시범적용후 BSC를 보완하고 공정한 실적 평가로 목표달성 고취, 인센티브와 연계한 평가보상 실시, BSC 운영전문가 육성, 09년도 BSC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 PI : 고질적 문제해결로 경영 프로세스 효율화 전개

PI는 PI추진과제 발취 워크샵실시, PI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추진절차 준수 및 중간 보고회 실시 기존 개선활동 준수 및 보완 실시, PI 교육 확대 실시 등으로 고질적 문제해결로 경영 프로세스를 효율화에 주력할 것이다.

▶ 자생력을 갖춘 추진체계 완성

• 사무국 요원 추진역량 강화활동 실시

경영혁신 Change Agent 교육 이수후 TP전개, 6시그마, 제안제도 등 전문기법 교육 이수, 우수혁신기업 벤치마킹 실시

등으로 사무국 요원 추진역량 강화

• 혁신활동 관리체계 완성

운영 Flow 및 주관/책임자 지정 및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 등 프로젝트 단계별 검토, 지도절차 기준 마련하고 사내 인터넷 과 연 동 한 PMS(Project Management System)개발로 프로젝트 활동 관리 기능을 강화

• 기존혁신 운동 운영 Know How 정리

각 프로그램별 운영 준비 및 결과보고까지 표준화 등 개선활동에 대한 Know How 정리 및 교육관리 방법, 교육과정 개발/보완, 교육평가 체계 마련, 혁신활동 부진 예방 및 혁신 활동 분위기 고취를 위한 경영혁신 정기 진단 실시 및 보고

▶ 즐겁게 전원 참여하는 혁신문화 정착

• 활동력 배가를 위한제도의 보완/정착

혁신 시상제도의 보완 및 시행, 현장혁신 리더, PI지도사 및 BSC CHAMPION 등 혁신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및 시행

• 즐겁고 기분을 중시하는 혁신 문화활동 시행

근거중시(구두합의 배제), 책임소재의 명확한 지정. 사전/중간보고 의무화 등의 기본지킴이 활동 홍보와 임원, 부서장이 지도/지원하는 분위기 조성 등 팀 중심으로 함께하는 혁신활동 유도

▶ 성과 창출형 혁신 인재 육성

• 기존 혁신교육의 확대 실시

상반기 4회, 하반기 2회의 현장 혼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PI 및 BSC는 연 2회의

보수교육 및 사원급까지 확대 실시

• 직무/인성 교육 관리 및 시행

현장 자격증 취득 개설반 운영 등 중장기 전사 교육 체계 및 계획을 수립 및 교육 수혜 균등, 교육 이수후 전달 교육 의무 실시 등 사후관리

▶ 신규 혁신 활동 체계적 도입 추진

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기 혁신 로드맵을 REVIEW하고, 경영혁신팀 체인지 에이전트화 및 전문기법 교육 이수등으로 사무국 요원 추진역량을 강화하며 프로젝트 단계별 검토, 지도절차 기준 마련, 프로젝트 발취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부문별 경영혁신 담당자 운영으로 혁신활동 관리리체계를 완성할 계획.

아울러 2008년도 경영혁신 활동성공을 위하여

1) 인재육성을 위한 확고한 교육 투자
2) 자체 운용능력 확보까지 경영층이 추진 주체

3) 혁신업무가 의사결정의 0순위화
4) 각 부문 임원이 혁신 추진계획 실행 주체임을 확고히 선언

5) 혁신 활동 결과를 부문, 부서, 개인 평가에 반영 실시 (인사 평가시) 등의 요건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회사는 창사 이래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7년도 한마음 운동, 2003년도 리프트 21과 같은 혁신활동이 그 저변에서 성장동력 역할을 하였고 '08년 경영혁신 추진 역시 향후 2012년 매출 3,000억 달성에 그

경영혁신의 '礎石(초석)'은 다졌다, 이제는 선보만의 '色(색)'을 찾아야 할 단계

지난해 9월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시작한 지 4개월 남짓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경영혁신. 수차례의 교육에 걸쳐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좋지 않았던 결과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선보만의 경영혁신을 이뤄낼 예정이다. 도입단계인 4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무분별한 도입과 급작스런 도입은 혁신 스트레스를 가중화시켰고,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끝에 올해 우리 회사는 전반적인 단계의 안전수칙과 함께 해당분양의 실무교육으로 꼭 필요한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혁신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따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실무교육 속에 혁신이 묻어나게 '현장혁신체계'를 진행할 것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활

동이 활발하거나 우수했던 팀 혹은 개인에게 포상했던 상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상상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성과에 따라 적은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해 상의 가치를 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는 팀 혹은 개인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보다 나은 결과를 낳고,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 경영혁신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혁신 방법이 현장에 혁신리더를 두는 시스템으로 변화했다. 5개의 공장을 분사, 영도, 구평 셋으로 분리했던 것에서 조금 변형해 분사, 영도와 구평 공장을 합하여 정호경, 김양태 상무 두 사람의 혁신리더를 두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관리자 위주로 한 총체 현장 혁신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

되었다.

경영혁신 도입 결과 '得(득)'이 있었다면 '失(실)'도 있었던 지난 한 해, 내 몸에 맞는 옷은 지키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된 지금. 올해 우리 회사 경영혁신의 귀추가 주목된다.

선보 혁신 마크의 의미?



1. "2112"

- 2: 2012년 까지
- 1: 생산성 향상 & 원가절감 10%
- 1: 세후 이익 10%
- 2: 매년 20% 매출 신장

2. 그림 & 색상

- 전체 그림은 역동하는 지구(우주)를 나타내며,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 2.1 파랑 : 바다의 의미와 함께 친환경 경영
- 2.2 금색 : 지구의 의미와 함께 바다에서 금을 수확하겠다는 선보의 의지
- 2.3 하늘 : 대 우주(하늘)의 뜻과 함께 화합과 도약하는 선보를 의미



2007년 종무식



우리회사는 2007년 12월 31일 각 계열 사별로 종무식을 거행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1,000억 조기달성과 경영혁신의 발판을 마련한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선보가족 모두가 장인정신으로 혼이 깃든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감동과 줄 때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목표인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음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시상내역

[모범상] 상금: 30만원

- 1 본사 구매부 과장 강동균
- 2 본사 생산부 팀장 김진삼
- 3 구평 영업부 대리 김광문

- 4 구평 생산부 명성산업 이창복
- 5 영도 품질보증부 과장 박상계
- 6 목포 생산관리 대리 김덕현
- 7 목포 생산부 GD ENG 김혜성
- [우수사원상]** 상금: 10만원
- 1 본사 품질보증부 사원 김태형
- 2 본사 혁신팀 계장 이재민
- 3 본사 관리부 대리 한태영
- 4 본사 설계부 계장 홍기원
- 5 본사 설계부 계장 신인호
- 6 본사 설계부 대리 이종원
- 7 본사 관리부 사원 류정희
- 8 본사 품질보증부 사원 이해자
- 9 본사 생산1팀 대리 신성인
- 10 본사 생산1팀 사원 수해란
- 11 본사 고객지원부팀장 전철민
- 12 본사 생산2팀 신덕ENG 이해욱

- 13 본사 생산3팀 주임 김오석
- 14 본사 생산3팀 팀장 허헌
- 15 본사 생산3팀 순해공업 박영호
- 16 본사 생산3팀 유성공업 백선우
- 17 본사 생산3팀 사원 양고로
- 18 본사 생산3팀 팀장 이상하
- 19 본사 고객지원부 조장 노재태
- 20 구평 생산관리대리 김광욱
- 21 구평 설계부 계장 박성호
- 22 구평 설계부 계장 황제환
- 23 구평 생산부 사원 박춘복
- 24 구평 생산부 대한 안석영
- 25 구평 생산부 대경산업 한동근
- 26 구평 생산부 대경산업 김솔
- 27 구평 생산부 명성산업 유상준
- 28 구평 생산부 제일기업 안계연
- 29 영도 생산관리대리 김태경
- 30 영도 생산부 사원 최성호
- 31 영도 생산부 선아기업 박해일
- 32 영도 생산부 다성산업 민병림
- 33 영도 생산부 다성산업 최찬억
- 34 영도 생산부 다성산업 신제혁
- 35 영도 생산부 일창산업 공경욱
- 36 영도 생산부 일창산업 김해근
- 37 영도 생산부 일창산업 조부봉

- 38 목포 설계부 사원 임성일
- 39 목포 생산부 사원 최승철
- 40 목포 생산부 사원 노성담
- 41 목포 생산부 사원 반정
- 42 목포 생산부 GD ENG 김대근
- 매출 일천억/수출 삼천만불 달성 대상**
- 1 본사 기술영업부 상무이사 최홍렬
- 2 본사 설계부 차장 장호길
- 3 본사 생산2팀 정수 허정민
- 4 본사 기술영업부 대리 유무성
- 5 본사 구매부 과장 이동준
- 6 본사 품질보증부 과장 최경호
- 7 본사 생산1팀 팀장 박재용
- 8 본사 고객지원 주임 조현상
- 9 본사 생산부 직장 서경일
- 10 구평 생산관리 부장 강보영
- 11 구평 생산부 대경산업 노재근
- 12 구평 설계부 차장 김황중
- 13 영도 생산관리 차장 이철수
- 14 영도 생산부 한서선박 이형근
- 15 영도 생산관리 대리 표종원
- 16 울산 생산관리 차장 김동희
- 17 목포 생산관리 차장 박원석

삼천만불 수출탑 수상

선보유니텍은 2007년 12월 9일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2007년 무역의 날 기념식 및 제 9회 부산 수출대상 시상식에서 삼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무역상사협의회장,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인을 예우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니세프 감사장 수여

2007년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세계 어린이 후원 단체인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우리회사는 유니세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 상은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를 위한 우리회사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유니세프가 수여한 감사장이다. 지난 수년간 유니세프에 꾸준히 후원을 해온 감사의 표시로 우리회사에 주어진 이 감사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소리지 않았던 우

리회사만의 또 다른 자부심의 표상으로 기억 될 것이며, 그어떠한 역대의 큰 수상보다 이 한장의 감사장은 분명 우리회사의 기쁨이다. 이에 우리회사는 이제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앞으로도 유니세프 뿐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더하며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갈사만 매립지 개발사업자 선정

우리회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갈사만 매립지 및 갈사만 매립배후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07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하동군수, 각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협약식에서 '갈사만 매립지 및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2016년까지 조성되는 용지 중 21만평에 대한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준

조선소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생산성 경영시스템 우수기업으로 선정

우리회사는 12월 11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2007년도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정부지원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생산성경영시스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상패를 수여 받았다. 그동안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시

장경쟁력을 갖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사적으로 하고있는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경영시스템 수준이 향상된 점을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

신주도형 성장체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22조의 2에 의한 국가적 경영시스템 등급인증제도이다. 이에 우리 선보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산(山)을 사랑하는 사람들 | 등산동호회

일출을 보기 위해, 야간산행에 나서다...

지난 5일 저녁, 등산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총 24명이 새해맞이 시산제를 지낼 겸, 정기 활동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영동에 위치한 민주지산을 찾기 위해 모였다. 약 1242m에 달하는 민주지산은 일명 '눈산'으로 많은 산악인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등산일 전 주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민



주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코스가 험난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산학교를 졸업하고 강의를 한 현광진 산행대장이

선두가 돼서 회원들을 이끌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산행대장은 "민주지산은 그 산세가 험난해 특전사들이 작전 도중 전사했을 정도로 위험한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와 아이젠 등 필수 등산 아이템들을 갖춰 완전무장을 한 상태에서만 등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밤 10시경 부산에서 출발해 도착지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경. 일출 시각에 맞춰 정상에 이르기 위해 편성된 코스에 따라 출발 시각은 새벽 3시 반경으로 결정됐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칠흑 같은 밤, 눈앞에 코가 닿을 정도의 경사, "여러 산을 다녀봐도 이런 악산은 처음이다."는 한 회원의 외침은 산행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듯 했다.

산행대장은 "초보 등산객들 뿐 아니라 모든 등산객들이 이러한 산을 오를 때에는 무엇보다 땀포 조절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뒤쳐지면 일행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일행들 또한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초콜릿과 사탕과 같은 당분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비축해두어야 하고, 30분 산행 시 5분의 휴식을 하는 땀포 조절에 크게 힘써야 한다. 민주지산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난 끝에 도착한 각호산, 일출 시각에 맞춰 민주지산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 힘들어할 틈도 없이 회원들의 강행군은 계속됐다.

아쉽게 놓친 일출, 정상에 올라서서

각호산에서 2시간 여 산행을 계속한 끝에 일출 시각에 맞춰 도착한 등산동호회 회원들. 하지만 일출 시각에 맞춰 때마침 나타난 구름으로 인해 해가 가려져 일출광경을 맘껏 보지 못하고 구름 사이에 살짝 보이는 해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아쉬워하는 것도 잠시 올 한 해 선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지냈다. 현OO는 "지난해 매출 목표 1000억을 한 달이나 당겨 달성한 것과 같이 올해도 그에 준하는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하는 선보가족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 가득한 산행을 마친 회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잘 따라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회원들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는 성공적인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 30대와 같이 될 수 있는 체력은 많은 등산 끝에 이루어낸 산행대장은 "등산은 마음만으로 할 수 없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등산도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등산할 때의 그 어려움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함을 생활 속에서도 습관화 한다면 정상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을 좋아하면 건강과 가족, 또 다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산동호회 회원들. 이렇게 힘찬 에너지들이 모여 선보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무사안녕 기원하는 '시산제' 지내...

지난 5일 우리 회사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 무사안녕과 더불어 회사의 번영, 사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열었다. 여느 해와 같이 금정산 상계봉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본사 기술영업부, 설계부 등 총 35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매출 목표 1,000억 달성에 이어 올해도 매출 목표 1,500억 달성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최종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시크릿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위대한 비밀'의 단편들은 오래 전부터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묶여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 책에서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면에 잠재되어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리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책 캠퍼드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존 그레이 등 24명의 대가들이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쥘 지혜를 전해준다. 그들은 이 책에 담긴 지식을 적용하여 질병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을 성취한 멋

진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삶의 원동력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같은 비전을 공유하려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또한 홈페이지 사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첨을 통해 설계부 김형중차장, 설계부 오창배기사, 생산부 최재호과장, 설계부 황제환기사, 관리부 문강채과장이 이달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박준복 사원 (추천인: 신용기)

선보인이 인정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항상 흔들림없이 일을 하는 것 때문.

칭찬 릴레이 22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제가 선보에 입사했을 때 직장님이셨던 신용기 소장님께 칭찬받은 거라 그 감회가 더 새롭네요. 선보에서 처음 닿았던 인연이셨던 분이래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제가 칭찬받을만한 자질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만드는데 같아요. 그저 자재운영 일 외에도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아직도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본사와 달리 유니텍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업무 외에도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매번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초심 또한 잃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만 더 움직여서 다른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해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그에 뒤처지지 않아야죠. 유

니텍 같은 경우에는 적은 자재 운영 인원으로 많은 자재들을 처리하려면 신속하게,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일을 하는 편이에요.

23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신용기 소장님이 저를 주인공으로 추천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셨듯이 저 역시 주위에서 보고 배울 분들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쉽지 않았어요. 많은 고민 끝에 명성산업 성기모 선임조장을 추천하려고 해요. 사실 성기모 선임조장은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못지않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에 뒷받침 되는 성실함까지 갖췄어요. 많은 바를 깨끗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몸이 아플 때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요. 몸이 아플 때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늘 꾸준하게 정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이런 여러 면들을 통틀어 볼 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성기모 선임조장으로 추천하려 합니다.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생일 고객지원팀 노재태(1/24) 구매부 김동균(1/4) 사내물류 조경선(1/9) 생산1팀 채규민(1/22) 장수복(1/29) 생산2팀 이흥석(1/16) 생산3팀 김정민(1/9) 김종민(1/22) 이도희(1/30) 생산3팀(금천) 고영복(1/6) 설계부 신인호(1/6) 고상현(1/30) 영업부 유우성(1/4) 이주일(1/16)	입원 최상식(1/26) 품질보증부 이창면(1/5) 입사기념일 생산1팀 채규민(1/9) 생산2팀 전철민(1/1) 생산3팀 이상하(1/1) 김병호(1/1) 지용현(1/1) 김복자(1/1) 오정홍(1/1) 이영갑(1/1) 장영규(1/2) 배희진(1/2) 이영동(1/3) 이희종(1/10) 김동식(1/16) 생산관리 김종성(1/1) 설계부 박규태(1/1)	영도 공장 생일 김양태(1/9) 최성호(1/9) 박오권(1/24) 목포 공장 생일 생산관리 이경희(1/15) 생산부 최승철(1/18) 가내수(1/26) 입사기념일 생산부 황창하(1/05)
---	---	--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쳐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타고난 엔지니어'를 넘어 또 하나의 '브랜드'로 이창복 직장



지난해 8월, '타고난 엔지니어'라는 명칭으로 한 차례 인터뷰에 임했던 이창복 직장. 그가 이번에는 '모범사원상'을 수상받아 2008년 새해 모두의 모범이 되는 변함없이 정직한 그를 다시 한 번 만나보았다.

한 사람이 두 차례의 인터뷰는 이례적 경우인데,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기쁨은 어떠신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말고도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모범 사원상'을 받긴 했는데 그저 쑥스럽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선보에서 일한 4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딱히 잘한 것도 없이 여러 상에, 두 번의 인터뷰에 제한되는 과분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일하는 만큼 일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서도 부끄러운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모범 사원상'을 받고나서의 소감은?

어떤 일이든 상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을 여러 번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 하는 말이지만 정말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하라고 준 상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상황

에 딱 맞는 말이에요. 더 많은 노력을 한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또 한 편으로는 고마워요.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동료들과의 화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직원들을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려고요.

새해가 밝았는데 선보 혹은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한 해가 밝았어요. 모든 게 다시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올해는 다치지 말고 일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작은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갔으면 해요. 다같이 일하는데 동료가 다치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안전을 지키는 한 편 또 직원들 각자의 마인드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보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의 마인드 성장으로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작은 축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올 한 해도 후회 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먹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